

도계(道界)가 아니고, 울진군과 영덕군의 군계(郡界)이다.

제5절 삼울1리(三栗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남쪽은 7번 국도를 경계하여 삼울2리와 접하고, 서쪽으로 삼울4리가 있으며, 북쪽은 삼울3리와 인접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13년에 건립되었다. 후포면사무소와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이 다수 구성되어 있으며, 후포면의 신흥 주택단지로 발전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275년(충렬왕 3)에는 평해군(平海郡) 남면(南面) 울현리(栗峴里)로 되었다. 1914년 3월 1일에 군(郡)의 통폐합으로 울진군 평해면 삼울리로 되었고, 1944년에 삼울1리가 삼울리에 서 분구(分區)되었다. 1946년에 삼울1리에서 삼울4리가 분구(分區)되었고, 1953년 1월 19일에 평해면 후포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삼울1리로 되었으며,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삼울1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748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를 비롯해 다양한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성주 생일인 음력 4월 8일에 제사를 지낸다.

5. 전설

1) 광산골

큰골 앞산에 광산(鑛山)이 있었는데 한때에 광원이 30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폐광(廢鑛)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부근을 광산골이라 한다.

2) 중밤터

이 지역에는 밤나무(栗木)가 무성하여 밤터(栗里)라 하였는데 그 중앙에 위치하였다 하여 중밤터라 불렀다.

3) 큰골, 큰재

양천(陽川)으로 유입(流入)되는 서쪽에 있는 하천변(河川邊)을 큰골(大谷)이라 하고, 그곳에서 마룡산(馬龍山)으로 오르는 고개를 큰재라 하며, 그 재의 동쪽 구릉지대(丘陵地帶)를 마당재라 하였다. 과거에 사찰(寺刹)이 있었다 하여 절골(寺谷)이라고도 한다.

제6절 삼울2리(三栗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소천(小川)[새쪽거랑]을 경계하여 후포5리가 있고, 서쪽은 양천(陽川)을 경계하여 삼울4리가 있으며, 남쪽은 동해(東海)와 접(接)하고 그리고 북쪽은 7번 국도를 경계하여 삼울1리와 접(接)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19년에 건립되었으며, 2020년에 증축되었다. 2016년에 후포면보건지소가 개소하였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삼울리에서 분구(分區)되어 삼울2리로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삼울2리로 되었다.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삼울2리로 되었다.